

삼성SDI, 리튬이온전지 세계 최강!

최대용량 2400mAh 보유 ... 2003년 제품양산으로 400억원 추가매출

삼성SDI가 세계 최대용량의 노트북PC용 원통형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새로 개발된 제품은 지름 18mm, 높이 65mm의 원통형으로 노트북PC, 캠코더 등에 주로 사용되며 지금까지 최대 용량이었던 2200mAh 제품보다 9% 이상 향상된 2400mAh의 용량을 갖췄다.

삼성SDI는 2003년 상반기 제품 양산에 돌입해 연간 400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삼성전자와 HP 등 세계 유명 노트북PC 생산기업들이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

삼성SDI는 2002년 5월부터 35명의 개발인력과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전지 내 쓸모없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전지 설계기술과 고밀도의 전극소재 채용을 통해 최대 용량을 확보했다.

그동안 노트북PC의 데이터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동영상 재현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전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높아져 고용량 2차전지의 시장수요가 급증해 선발기업인 일본에서도 개발에 주력해왔다.

2002년 4월 당시 세계 최고용량이었던 2200mAh 제품을 양산한 바 있는 삼성SDI는 9개월만에 다시 한번 일본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세계 최대용량인 2400mAh 제품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노트북PC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노트북PC용 원통형 리튬이온전지의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2003년 2억9000만개에서 2004년 3억1000만개, 2005년 3억5000만개 규모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Chemical Journal 2003/ 02/ 13 >